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413
----------	-----

제출년월일 : '95. 7. .

제안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일본식 지명에 대하여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하여 지명과 관련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 상 : 2개 법정동
 - 현 행 : 章上, 章下洞
 - 변 경 : 獐上, 獐下洞
 - ※ 章上洞 → 獐上洞, 章下洞 → 獐下洞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3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회의견 청취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고유지명 명칭 및 변경유래

○ 고유지명 명칭 : 獐上, 獐下洞

○ 변경유래

- 安山郡 郡內面 獐谷里·東谷里 지역을 1914.3.1 부령 제111호에 따라 始興郡 秀岩面 章上里로 改稱하면서
- 獐上里의 "獐"자중 "章"(개사슴)변을 탈락시키고 "章"(글장)자로 사용
- 이는 일제가 지명을 개칭하면서 짐승의 이름이 붙은 지명은 人物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여 "獐"(노루장)자를 고의로 "章"(글장)자로 고친것임.
- 여기서 獐上은 고구려, 신라때 安山郡의 관아가 있던 역사적인 곳이므로 일제가 고의로 지명을 바꾸었으며
- 獐下洞은 관아 아래에 있는 곳이라 하여 獐下里라 했는데 역시 "章"(개사슴)변을 탈락해 章下里로 改稱한 것임.

□ 주민의견

- 역사적 전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고유지명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잘못된 지역명칭을 바로 잡아 문화적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 또한 절대다수의 주민찬성으로 안산시 편입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더 우리고유 명칭으로 개칭되어야 함.

※ 「우리고유지명찾기」 주민여론 파악을 위한 반상회 개최 결과

- 일 시 : '95. 7. 5 (수) 14:00
- 장 소 : 안산동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21명(동단위 단체장 6, 장상.장하동 주민 15)
- 결 과 : 21명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

□ 향후 추진일정

- 도에 승인 신청 : 7.20일까지
- 내무부 승인 조치 : 7.31일까지
- 고유지명 찾기 결과보고 : 8월초

□ 참고사항

- 「조선지지자료」에 보면 장상동의 동쪽 계곡에 노리울이란 지명이 있는데 이곳은 고구려 및 신라시대의 읍치(邑治)지로 당시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조선시대의 안산관아는 처음에 목내동 일대에 있다가 소릉으로 인하여 1441년 장상동 노리울 주변으로 옮겨가고 1669년에 다시 수암동의 현 위치(수암동 256번지 일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

※ 「내고장 안산」 - 90. 2.28 안산시 발행

- 장항구현(獐項口縣)을 고구려시대 안산의 현명(縣名)이며 장구군(獐口郡)은 통일신라 안산의 군명(郡名)인데 이들의 치소(治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 고종조에 발간된 「안산군읍지」나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1918) 등의 문헌을 보면 安山郡 郡內面 獐谷으로 기록되어 있음.

· 獐谷은 지금의 시흥시 장상동('95. 4.20 안산시로 편입조정)노리울 마을로 조선 시대에는 安山郡 郡內面 獐谷里로 불리었던 곳임.

· 마을뒤에 있는 고깔봉에서는 마을에 이르는 형세가 풍수로 보아 노루의 입처럼 생긴 노루혈(獐口穴)이므로 "노리울"이라 했는데 현명(縣名)도 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서술

※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 '95. 5.31 시흥시 발행

○ 정조 13년(1789)에 발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안산군(安山郡)군내면(郡內面)의 호수(戶數)는 597호에 인구는 2,619명인데 그중 남자가 1,436명, 여자가 1,18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안산군(安山郡) 군내면(郡內面)에는 동암리(東庵里), 서정자리(西亭子里), 장곡리(獐谷里), 부곡리(釜谷里), 신동리(新洞里), 점성리(占星里), 성곶리(聲串里), 성곶포촌리(聲串浦村里), 양등대리(楊等代里)로 표기되어 있음.

※ 「戶口總數」 - 정조13년(1789)발행, 서울대 규장각 소재(자료별첨)

- 이를 지금의 행정체계로 보면 시흥시의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95.4.20 안산시로 편입 조정)과 안산시의 부곡동, 성포동, 양상동이다.

※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 '95. 5.31 시흥시 발행

○ 이상의 행정체계는 일제가 1914.3.1 부령 제111호(1913.12.29 공포)로 식민통치 기반을 다지고자 부.군.면 통폐합으로 衿川(始興) 安山, 果川의 3개군이 통합되어 시흥군이 되고

※ 「행정구역연혁 및 지명관련사태」 - 1987. 2. 내무부 발행

○ 安山郡 郡內面 獐谷里 · 東谷理를 始興郡 秀岩面 章上里로 改稱하면서 "쥬"(개사슴록변)을 탈락시킴.

- 이는 일제가 지명을 개칭하면서 짐승의 이름이 붙은 지명은 人物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여 "獐"(노루장)자를 고의로 "章"(글장)자로 고친것이며, 獐下洞은 관아 아래에 있는 곳이라 하여 獐下里라 했는데 역시 "쥬"(개사슴록)변을 탈락해 章下里로 改稱한 것임.

元戶一百二十八口五百三十二男二百四十一
女二百九十一

高蘭荅面杏山里楓谷里新
洞里樽山里台里

元戶一百八十九口六百四十二男三百三十八
女三百二十八

林村面永基里薪谷里
濟津里坪里

元戶一百八十三口七百十八男三百六十九
女三百四十九

安山面六里
四十八


元戶二千七百五十八口一萬一千九百二十六

男六千四百六十六
女五千五百二十

郡内面東奄里西亭子里
占星里聲市里聲市浦村里釜谷里新洞里

元戶五百九十七口二千六百十九男一千四百一
女三百六

안 산 시 의 회 의 건 서

안 건 명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제 출 자	안 산 시 장	제 출 일 시	1995. 7. 14
의 건 청 취 요 지		안 산 시 의 회 의 건	
<p>○ '95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종전 시흥시에서 '95. 4. 20일 안산시로 편입된 장상·장하동의 한자명칭중 노루장자를 일제가 1914. 3. 1일 부령 제III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로 개칭하면서 짐승의 이름이 붙은 지명은 인제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노루장자의 개사록변이 없는 글자장자로 고친 것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함.</p>		<p>○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코자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일본식 지명에 대하여 우리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시층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p>1995 년 7 월 26 일</p> <p>안산시의회의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